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19. 11. 28.(목) 10:06 ~ 11:3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 ◆ 일시 : 2019. 11. 28.(목) 10:06 ~ 11:30
- ◆ 장소 : 문화본부 4층 회의실
- ◆ 참석자 : 표석분과 위원 등 7인
- ◆ 심의안건 (총 3건)
 - <박자혜 산파 터> 표석 신설 사전심의
 - 2019년 표석 업무 현황 보고
 - 2020년 표석 추진 방향 자문

(개회)

○ 000 주무관

올해 마지막 표석분과 문화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안건이 단출한데요. 표석 설치와 관련해서는 신채호 선생님의 처인 박자혜 선생님이 사셨던 가옥 터에 표석을 세우는 건입니다. 신청한 단체가 신채호 기념사업회인데 그 기념사업회에서 설명을 하러 와 있고요. 이분들은 딱히 후손들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모셔서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표석 신설 사전심의

<박자혜 산파 터>

(사업관계자 입장)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미흡하지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9/K11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35



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부인이신 박자혜 여사님의 산파 터에 표석 설치를 부탁드리려고 왔는데요. 신채호 선생님의 부인이신 박자혜 여사님은 1922년도에 베이징에서 고국으로 오셨을 때 그 시기부터 산파 터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산파 터의 표석 설치 위치가 이야기되는 게 종리구 인사동의 69번지입니다. 1927년도부터 1928년도 사이에 인사동 69번지에 있었는데 이 자료는 1928년도 12월 12~13일자 이틀간의 박자혜 선생의 고초에 대한 신문기사가 동아일보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확정지어서 인사동 69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 사유는 박자혜 여사는 ‘산파 박자혜’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어머니로서 아들 둘을 키우며 주체적인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산파 박자혜’ 터는 그런 과정에서 항일 여성독립운동가의 주체적 삶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독립지사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이 표석 설치(안)을 드렸습니다. 박자혜 선생의 이력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1895년도에 출생하셨고 아기나인으로 궁녀 신분으로 있다가 1910년도 이왕직관제가 발표되어 궁녀 신분에서 벗어나서 숙명여학교 기예과에서 수학하셨고 1916년도에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1919년도에 총독부 산부인과에 근무하시다가 독립항쟁의 3·1만세운동을 보시고 난 다음에 간우회를 조직하시고 독립운동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1920년도에 신채호 선생과 만나서 북경에서 결혼하셨고 1921년도에 장남 신수범 선생을 출산하신 이후에 1922년도에 고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파 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문에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난산일 때만 이용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가졌다고 하고요. 특히 저희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나석주 의사의 의거를 도왔던 부분을 산파 터에 담아보고 싶었지만 시기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서 나와 있는 69번지 같은 경우는 1927년부터 1928년도까지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박자혜 선생의 공훈록에 보면 실제로 박자혜 선생님 나석주 의사가 지리를 잘 몰라서 그 지리를 도와주셨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또 이 산파 터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다는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정확하게 1926년도 12월에 의거가 있고 1927년도에 박자혜 여사께서 북경으로 신채호 선생을 뵈러 가는 그 한 달 간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게 그때 갔다 와서 다시 산파 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69번지가 정확히 나석주 의거 때 그 자리에서 도와주셨는지를 저희가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1936년도에 신채호 선생이 사망할 무렵쯤에는 또 신문기사에는 인사동 122번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42년도에 차남이 사망하고 1943년도에 서울에서 경제적 궁핍과 생활고, 병고로 인해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를 받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미비하고 그 내용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학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찾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지금 인사동 69번지가 1929년도의 경성부일필매지형명세도에 보면 그 위치가 현재의 남인사마당 위치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니까 거기에는 표석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공간은 충분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로구청장이 저희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 이사로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 논의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공간에 대한 부분은 문제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한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표석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오늘 당장 여기서 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전심의니까 여기서 확정지을 단계는 아니고 왜냐면 지금 준비된 자료나 구체성을 띤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도 준비할 게 있으면 준비하도록 부탁을 하고 그런 정도의 의견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박자혜 선생의 이력은 애족장 추서 당시에 정리된 이력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1895년도에 태어나서 1990년까지 이력이 쪽 적혀 있는데 이 이력이 정리된 게 언제인가요?

○ 사업관계자

정확히 정리된 것은 공훈록 작성할 때 작성되었고요.

○ 000 위원

그럼 이 애족장을 추서할 때 사유서 같은 것을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 사업관계자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드려도 괜찮을까요? 애족장 추서와 관련된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보훈처에 가서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요새 또 독립운동가 인명사전을 쓰고 있잖아요. 새로운 자료를 많이 발굴했을 겁니다. 1차로 가장 급이 높은 분들은 샘플로 간행이 됐고 박자혜 선생 정도도 같이 집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새로운 자료를 찾아서 지금... 공훈록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어떤 것은 오래되어서 틀린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독립기념관, 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이런 데에 문의를 하면 새로운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쓰는 분들이 예전과는 달리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깐요. 그렇게 해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000 위원장

여성운동사 쪽에서도 혹시 이쪽 독립운동 했던 여성 독립운동사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자료도 많이 축적되고



있나요?

○ 000 위원

최근에 좀 하는데 아직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축적되지는 못했어요.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하기는 하는데 올해 3·1운동 100주년 때문에 많이 했잖아요. 발굴하고 하는데 축적되었다고까지는...

○ 000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산파가 있었던 자리가 종로구 인사동 69번지인데 그 69번지에 산파가 있었다는 것을 1927년하고 1928년 이때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적도를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맥락이 안 잡혀서요.

○ 사업관계자

그게 뭐냐면 동아일보 1928년도 12월 12~13일 박자혜 산파 터와 관련된 기사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인사동 69번지라고 특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1922년도에 와서 산파 터를 하셨던 내용들은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 중간에 1927년도에 한 달 정도에 베이징에 가서 신채호 선생과 계셨던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하다 보니까 특화시켜서 1922년도부터 여기까지 이 자리인지를 갖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1922년에 들어왔는데 나석주 의사의 의거가 있던 그다음 해에 다시 북경에 가셨다가 왔는데 그러면 1922년부터 1927년, 1928년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인사동은 맞거든요. 그런데 지번이 나와 있는 게 아까 특화시킨 게 동아일보 기사에 69번지로 나와 있고 1936년도 신채호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기사에는 122번지로 나와 있어서요. 저희도 중론은 뭐냐면 박자혜 여사가 인사동에서 왔다 갔다 하셨을 수는 있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지금 특화된 것은 1927년도부터 1928년



도까지는 명확하게 69번지에 있었다는 거죠.

○ 000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어느 지역에 옮겨 다녔던 위치가 있다면 특정 짓지는 않더라도 그 중간의 어느 정도에 산파 터가 있다든지 어떤 집터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그런 형태로 산파를 하면서 나석주 의거도 도왔다는 그런 형태로 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한 것들이 사는 공간하고 실제 산파 공간하고 같은 곳이나 아닌 것이냐.

○ 사업관계자

같은 공간입니다. 기사 내용에 산파 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사랑채 없이 살고 계셨다는 내용들도 나와 있거든요.

○ 000 위원장

그럼 1927년도에는 가능한데 여기 1936년도까지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122번지에 거주했으니까요.

○ 사업관계자

그렇죠. 1928년도 12월까지의 신문기사에는 69번지로 나와 있고 한참 터 울이 지난 1936년도에는 그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인사동 122번지로 나와 있거든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주거지인지 산파 터인지.

○ 사업관계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지금 보니까 산파 터와 주거지가 같이 나옵니다.

○ 000 위원장

그럼 산파 터도 이사했다는 얘기네요.

○ 사업관계자

지금 보니까 산파 터하고 주거지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이사를 하고서 산파 일을 계속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불분명하네요.

○ 사업관계자

내용을 보니까 산파 터를 운영하면서 돈이 안 되니까 참외 장사도 하고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산파 터 표석을 신청한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보통 잘 안 알려진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남편이나 아들, 그다음에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분들도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후방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고 신채호 선생도 생활고가 힘들어서 내려가라고 했지만 편지의 내용을 보면 솜옷을 달라든지 책을 보내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채호 선생님도 그런 책도 간행할 수 있었던 거죠. 포괄적으로 볼 때는 산파 터에서 벌여졌던, 경제생활을 했던 그런 자금들과 그 외에 실제로 그것을 갖고는 안 되었으니까 참외 장사나 다른 것으로 하면서 얻었던 수익금을 가지고 신채호 선생을 도운 것도 있으니까요.

○ 000 위원장

산파라는 게 근래까지도 보면 지금 산부인과처럼 병원처럼 정식으로 운영된 게 아니고 일반 자기가 사는 집에서 산부가 도움을 청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보면 직접 산부의 집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산파가 있는 곳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병원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거 개념이 오히려 더 강할 거예요.

○ 사업관계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9/K11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8/35



맞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산파라는 게 애를 낳는 시간이 낮뿐만 아니라 새벽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파 터의 간판은 설치되어 있지만 주거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밤이든 새벽이든 와서 두드려서 모셔 가기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대개 그렇죠. 근래까지도 다 그랬으니까요. 산부인과가 1960~1970년대까지 다 있었으니까요.

○ 사업관계자

요즘처럼 산부인과 개념이 아니라 외래하는 형태가 맞을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그렇죠. 개인 집이죠.

○ 000 위원

예전에 산파할머니라고 그러잖아요.

○ 사업관계자

예. 거주지입니다.

○ 000 위원장

의원들도 집에 불러오기도 했잖아요.

○ 000 위원

이 기사에도 그렇지만 간판 오른쪽에 인사동 69번지라고 아예 적혀 있어서 그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앞거리 어딘가에 할 수도 있는데 간판에 인사동 69번지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 것 같아요.

○ 사업관계자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낡은 간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 000 위원

그런데 이 신문기사가 구구절절하게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려는 느낌이 있네요.

○ 000 위원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단재 선생은 조선혁명선언도 쓰고 의열단 하느라고 엄청나게 강경파로 나갔는데 자칫 잘못하면 해코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채호 가족이 여기에 있다면 일제에 의해서 더 위험했을 수 있는데, 이때가 아무래도 신간회가 설치되면서 분위기가 나름대로 고무됐던 시기라서 동아일보가 이렇게 신문기사를 낸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질문할 것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고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에서 협의하죠.

○ 사업관계자

잘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 000 위원

나중에 122번지 기사도 첨부해 주세요.

○ 000 주무관

예. 그것은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퇴장)

○ 000 위원

제가 검토를 하고 왔어야 하는데 못하고 온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동 69번지가 주거지 겸 산파였는가?’하는 문제는 사실 ‘이 69번지의 소유자가 박자혜인가 신채호인가?’에 대한 문제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세 들어 살 수도 있죠. 돈이 없는데 자기 집이 아닐 것 같아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 000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워낙에 토지조사부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하고 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와서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69번지와 122번지 소유주도 같이 검토하고 그 소유주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박자혜나 신채호가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좀 더 검토하면... 저는 사진상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가 있는 게 중요하니까 122번지보다는 69번지가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표석을 세울까 말까는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 위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위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유주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사전심의 단계니까 지금 얘기는 과연 박자혜 산파 터에 표석을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신채호 선생님 것을 찾다 찾다 불투명해서 결국은 방향이 이렇게 틀어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 000 주무관

박자혜 선생님 이력은 공훈록하고 신채호 선생님 기록에서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논문이 한 편 나와 있는데 그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구요. 신채호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이미 결혼을 삼청동에 사실 때 지난번에 보류가 된 그 건의 첫째 조씨 부인과는 헤어지고 1910년도쯤에 중국으로 건너가셨고 박자혜 선생님은 신채호 선생님보다 15살 아래이고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궁인으로 입궁을 했다가 이 왕직제도가 발표되면서 근대교육을 받고 그 와중에 3·1운동을 전후로 해서 그 당시의 간호기술을 익혀서 총독부 의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만세운동을 목격하고 중국으로 건너가셔서 연경대학 의예과를 다니는 와중에 신채호 선생님을 이회영 선생님의 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 장남이 나셨고 그런데 신채호 선생님은 생계와 관련된 아무런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박자혜 선생님이 장남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친정도 너무나 가세가 어렵고 제가 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신채호 선생님의 본가 자체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 박자혜 선생님과 본가의 관계까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자혜 선생님이 혼자서 생계를 여기저기서 해결하고 남의 집에 계속 왔다 갔다 살다 보니 사실은 어찌면 아마 인사동 69번지도, 인사동 122번지도 전혀 본인의 집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나마 1926년도에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들을 안고 잠깐 중국에 입국해서 또 한 달간 지내시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신채호 선생님은 체포가 되어서 대련형무소에 수감이 되었고 본인은 그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인사동 69번지에 남의 집에 세를 들어서 살기 시작하셨는데 그야말로 방 한 칸 얻어서 사셨고 그러면서 1927년 그믐달부터 인사동 69번지에 거주하면서 산파로 생계에 도움을 받고자 시작했다는 게 정확하게 지금 보시는 동아일보 기사에 보도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1922년부터 1926년까지 어디에 살았는지가 궁금하네요.

○ 000 주무관

박자혜 선생님에 대한 기록의 대부분은 신채호 선생님의 부인이기 때문에, 또 신채호 선생님이 체포가 됐을 당시에 뭔가 보도가 된다면 한국에 계시는 박자혜 선생님이 보도의 인터뷰를 신문에 실어지는 정도로 해서 지금 기사가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픽업픽업 보도가 됩니다. 1936년도에 신채호 선생님이 돌아가실 위기에 있다는 게 동아일보에 보도될 때 박자혜 선생님이 인사동 122번지에 거주한다는 신문 기사가 그나마 남아서 그분의 거주지가 지금 정확하게 지번까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지금 지번을 인사동 69번지 인근의 지번이 아직은 재개발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일부 필지와 지번이 살아 있어서 대조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탑골공원 옆으로 낙원악기상가로 도로가 확장이 됐는데 바로 그 도로 중간 정도가 지금 기사에 난 인사동 69번지 박자혜 산파 간판이 걸려있던 곳이 아닌가 하고 추정됩니다.

○ 000 위원장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A19/K11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2/35



일단 먼저 크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그거 같아요. 현재 박자혜 선생의 산파 터에 표석 설치하는 방향을 어찌됐든 간에 추진하는 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자료 보강을 요구하는 형태의 방법도 있고 이것보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채호 선생님 것을 더 추적하는 방향으로 가자. 가면서 이것을 보류를 할 것인지. 이런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박서는 이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큰 방향에서 어떻게 신채호 선생님의 유족이 표석을 설치하는 타당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박자혜 선생님 것으로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또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주무관

신채호 선생님이 1910년도에 중국으로 가신 이후로는 거의 조선에 입국하신 바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어찌 보면 1910년대는 근대적인 지형도나 지번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그러다 보니 저번 위원회 때도 그분의 마지막 거주지 지번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나 그 당시의 지번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이후의 지번과 정확하게 매치가 어렵다 보니까 보류가 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유가족도 그렇고 더 이상의 추가 자료를 찾아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채호 기념사업회에서 똑같이 박자혜 선생님이 이후로 추서를 받으셨으니 그분의 행적을 찾다가 신청을 하게 된 것 같고요.

○ 000 위원

122번지에는 언제부터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 000 주무관

사실 그것도 그렇습니다.

○ 000 위원

잠깐 포털에 검색해봤는데 신채호 선생님이 체포된 게 1928년이거든요. 1928년부터 1936년에 돌아가시는 사이의 옥바라지는 1928년 이후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이 집이 아니고 이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집에 간판을 세워서 하면 나중에 이 집도 세워야 하고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 000 주무관

말씀하신 대로 이 신문이 구구절절 이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두 번째 12월 13일 기사에 보면 아마 이 당시에 이미 신채호 선생님이 형무소에 수감이 되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편이 이렇다 보니 남편에게 그 추위에 솜옷도 못 보내준다.” 이런 식의 토로를 기자한테 여과 없이 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보도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미 이 당시에 굳이 말하자면 옥바라지를 단기간이나 마 하지 않았나 하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000 위원

글씨가 그거 아니에요? ‘대련 옥중에 와서’ 이것이고, 8쪽 기사를 보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추정한 것 같은데 밑에서 ‘눈물겨운 재회도 잠시’ 여기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면 ‘작년 동짓달 그믐날에 배워둔 것이 산 파술이어서 지금 있는 인사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1927년 말에 이사한 것이 여기에 근거한 것 같고 그 앞을 보면 ‘돌아와서 친척관계로 알음이 있는 모씨 집에서 몇 해 동안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한 집에 있다가 1927년 말에 인사동 69번지로 이사를 간 거예요. 여기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아마 이런 근거로,

○ 000 위원

그러면 나석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 000 주무관

사실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그 신문 내용대로라면 나석주 의거는 1926년 12월 2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석주를 신채호하고 김구하고 김창숙이 의논해서 파견한 것은 맞는데 김창숙이가 와서 돈을 걷어갔는데 돈이 얼마 안 돼요. 200만 원 걸기로 했는데 몇 천 원 되니까 독립운동 기금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구한테 물어보니까 김구가 “나석주가 갈 것이다.” 이래서 신채호, 김구, 김창숙이 의논해서 나석주를 파견하니까 갔을 때 박자혜가 도와줬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한데 선생님이 읽



어주신 기사대로 하면,

○ 000 위원

아니요. 양쪽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사 오기 전에 거기 살았으니까 또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 000 위원

제 말은 이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 000 위원

이 집은 아니죠.

○ 000 위원

그러니까 박자혜가 도와준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도와줬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 000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집은 아니예요.

○ 000 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연결해서 이 집에 간판을 걸어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읽어주신 기사 내용은 이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 000 위원장

표석 내용에 나석주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 000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나석주 의거를 도와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 000 위원

그건 아니예요. 이때 박자혜 여사의 활동 중에 나 의사를 도와줬다는 것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9/K11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5/35



이지 이 집에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서는 아닌 것이 확실하고요. 이것은 그 이전에. 의미는 있을 것 같아
요. 왜냐면 탑골공원이 3·1운동이 있었던 데니까 이쪽 일대가 나름대로…
다행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단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치고 단
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사동에 이렇게 하면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라고 하죠.

○ 000 위원

그렇기도 하고 여자라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기도 해요. 여성 독립운동
가는 지금 막 발굴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역할
이면 그래도 의미는 있지 않을까.

○ 000 위원장

그런데 이 공간은 단재 선생님이 살았던 공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
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고 하니까 청원 묘역에 있는 것을 사적으로 하고 박
자혜 선생님의 얘기로 해서 이 당시 독립운동을 했을 때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표석을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 000 위원

예. 그런데 단재도 있지만 박자혜 선생도 추서를 받았으니까 두 가지 의
미가 있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사실 여자들의 독립운동의 상당 내용이 그런 식의 지원이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일단 타당성은 인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지금 정 주무관님
이 얘기한 것처럼 소유자의 지번 관계 같은 것도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그



리고 1922년부터 1936년 사이에 움직였던 내용들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공훈록도 추적해서 가능하면 기념사업회에 자료를 제공하라고 얘기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죠.

○ 000 주무관

네. 자료를 추가보완하고 다음 위원회 때 상정이 된다면 명칭이나 문안 등도 가안을 받아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000 팀장

그럼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 자료는 보완하라고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잠깐만요. 일단 69번지에 표석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하는 거죠, 122번지가 아니라? 그런데 나중에 또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 69번지 터는 큰 도로상으로 포함이 되어 버렸으니까 남인사마당 앞쪽으로 하면 가까우니까 표석 설치 위치는 참 좋을 것 같아요.

○ 000 주무관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예. 공간도 있고 사람들이 공원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깐요.

■ 2019년 표석 업무 현황 보고

○ 000 주무관

그러면 다음으로 올해 있었던 표석 사업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2019년에 걸쳐서 저희가 표석 사료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했는데 올해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도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 위원회가 조금 일찍 개최가 되다 보니 정리가 된 다음에 내년 초 첫 위원회 때 올해 있었던 마지막 사료조사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태 2018년도까지는 위원회가 약간 불규칙적 이거나 1년에 3회 정도 개최가 됐는데 올해부터 4회 정도를 정례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해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정례화를 하고 또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새로운 안건이라든가 어떤 발굴이 있다면 추가해서 1년에 적어도 4회 이상은 반드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있었던 표석의 정비 건을 보면 다 선생님들께서 올해 의결을 해 주셨던 건인데 총 세 건이 의결이 되어서 신설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명 여권통문이라는 건이 중구 남대문로 10길에 설치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제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가 중구 정동에 설치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전형필 선생과 관련된 한남서림 터가 인사동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한남서림 터는 기존에 저희가 2013년도에 디자인 안을 개발하고 나서는 계속 스테인레스 재질의 스탠드 형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바닥매립 형으로 진행했습니다. 상당히 변화한 인사동의 현장 상황을 고려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게 일반 표석 가격의 2.5배 이상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다른 표석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을 올 스톱을 하고 이것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재질로 표석이라는 재질의 특성을 살리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이 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무교 터는, 서울 시내에 반복적으로 계속 훼손이 일어나는 표석이 있습니다. 무교 터만 해도 올해 벌써 두 번 교체를 했는데요. 차가 들이박기도 하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차가 들이받고 가면 누가 했는지 사실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두세 번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무교 터도 아시다시피 신청사 바로 뒤에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바닥매립 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역시나 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을 다 소진해버려서 더 이상 정비사업을 못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등등 해서 올해는 총 43건에 대해서 정비했는데 사실 작년 표석 사료조사 결과 20여기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매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아서 정비해왔는데요. 사실 올해 마지막으로 그 정비를 더 완료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바람에 그것도 못한 부



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내년 초까지는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리의 부분인데 올해 처음으로 표석이 상시적으로 훼손되
거나 하는 것들을 바로 바로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공공근로
제도를 이용해서 표석이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종로, 중구, 용산구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바로바로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자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면서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즉각
적으로 표석의 현황에 대해서 빨리 알게 된 장점은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
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사업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올해 사업 중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지적사항이 있으신지 여쭙보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올해 일을 많이 하셨네요. 회의도 하고 정리화시키고요.

○ 000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000 위원장

올해 사업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실무선상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 000 주무관

실무 입장에서는 사료 발굴 조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신청자 분들은 굉장히 단편적인 사항을 들고 와서 신청을
하는데 물론 그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득을 해
서 돌려보내는데 분명히 설치가 필요하겠다고 하지만 자료가 너무 없다
보니 보류가 되어서 그동안 넘어온 건들도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
을까. 담당자인 제가 하기에는 제가 사실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선생님들
께도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000 위원

보류된 건이 많나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보류된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뭐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정기간 보류 아니면 몇 번 보류가 되면 자동으로 안 한다든가 무슨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 000 팀장

위원회 때는 간혹 예를 들면 신채호 집 터라든지 부결하면 조금 그래서 일단 보류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료가 또 보완이 된다면 하겠다는 취지로 보류를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만 더 해서 다음 달에 올려보면 되겠다.’ 이런 인식차가 있습니다.

○ 000 주무관

처음에는 특히나 인물 관련해서는 후손들이 대부분 신청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아예 위원회에 발언하실 기회도 안 드렸더니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기회를 드렸더니 유족 분들은 본인이 보훈가족으로서 ‘내가 가서 설명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를 들고 오셔야 하는데 신청자들이나 유가족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청자 분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재가해 주신다면 와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 000 위원

본인들도 열정은 넘쳐흐르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이게 한 번 설치되면 1~2년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왕 처음에 설치될 때 가장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잘 알려드리면 될 듯해요. 그 역할을 주무관님보다는 아마 저희가 해야 하겠죠.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여러 가지 근거라든가, 우리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죠. 저희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 000 위원

우리가 질문해서 몇 번 대답 못하면 자기들도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이럴 것 아니에요.

○ 000 위원

그런데 답답하기는 하죠. 듣고 해서 확실한데 증가를 들이댈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또 찾으려면 나오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정 주무관님 이런 분들이 조언을 해 주면 또 새로운 방법이 생기니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 000 주무관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신청 단체에게 설명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분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노출하면 안 되는데 이런 전문가로부터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어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승복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요.

○ 000 위원장

내년도 사업과도 연결되는 얘기지만 아까 얘기하신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대상황이나 인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정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건 참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인물 관계로 해서 어느 시대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얘기해왔던 것은 살아 있는 사람의 시대는 다 뻘다. 이미 다 고인이 된 시대 관련된 것들, 그런데 고인이 된 것도 문제가 있었죠. 일제를 전후해서 살던 시대로 내려왔는데 해방되기도 70~80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그리고 시대사가 그때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서울 600년사 책을 시사편찬위에서 편찬을 하면서 시대사가 내려오다가 끝난 게 박정희 시대에서 하고 끝났어요. 그 뒤로는 다 살아 있는 사람들 얘기이고 한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다 보류로 그 뒤로 시대사를 안 냈거든요. 그러니 박정희 시대사까지만 해도 70년대까지 넘어오니까 4·19세대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워낙 단체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로 기준을 잡는다는 게 우리도 힘들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실무 담당자가 민원을 받으니까 더 어렵겠죠.

○ 000 위원

기한을 정하는 것은 어떻게 싶은데요. 문화재를 지정하는 과정 중에 등록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전에 지정된 문화재의 기한에 비견해서 문화재를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등록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으로부터 50년 이전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표석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어느 시점까지라고 정해놓으면 이다음 계속 지나갈 때도 100년 전까지만 표석 설치의 대상이라고 해놓으면 표석분과위원회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하네요.

○ 000 팀장

4·19 등은 인권담당관이 있어서 인권담당관 차원에서 인권표석이라고 본 인들이 바닥에 설치하고 있기는 합니다. 4·19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희 위원회에서 4·19까지 넣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000 위원

현재 가장 최근의 것이 언제 것입니까?

○ 000 주무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첨부 자료 15~16페이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표석 현황을 간략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322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근현대라고 분류되어 있는 게 102기인데 이 가운데 사실은 사건도 있고 어떤 인물도 있는데요. 사실 인물이나 사건들로 보면 명확하게 일제강점기로 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가장 시기가 떨어지는 게 어떤 것인지 보니 문화 카테고리에서 은성주점이라고 문인들이 많이 모였던 주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을 기념하는 표석이 하나 설치됐는데 그게 1960년대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1960년대 문인들의 집합장소였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은성주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전시를 쪽 한 적이 있었



거든요. 은성주점을 조명한 게 아니라 문인들의 집합소, 명동 이런 장소성을 조명하다가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들을 했는데 이것만 이례적으로 1960년도인데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개인의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인물과 시기의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주로 돌아가신 분만을 기리는 표석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것도 독립운동에 관해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기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명한 표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4·19로 기점이 자연스럽게 분할이 되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자들한테 설득하고 있지만 최근에 1960년대 것들을 더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이 자꾸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청 안에서 약간의 업무분장으로 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인권담당관에서 민주화운동을 다 포괄해서 하다 보니 4·19는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표석분과가 다른 문화재위원회들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말씀을 드리면 다른 문화재위원회나 지정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다 위원회가 설정이 되어 있고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만, 표석은 사실 그게 없는 셈이거든요. 다만 문화재위원회라는 제도 안에 표석분과를 하나 만들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내부 규칙 정도로 해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대가 지나면 그 근거나 기준이 상당히 진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내년에는 소위원회, 일명 TF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정비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활동을 해 주실 위원 분들을 추천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정말 더 감사하겠습니다.

○ 000 팀장

방식을 본 위원회에서 의제를 선택해도 되지만 소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사건, 인물 등 어떤 테마를 정해서 이번에는 인물 관련된 것으로 하겠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9/K11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3/35



그리고 현재 누락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선택하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그것을 발굴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성주점은 연도상으로는 최초 만든 것은 1953년에 개원을 한 것이라 그게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물, 사건 이렇게 가는 방식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조금 시급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 위주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를 해서, 지난번에 전차정거장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문학에서 나오는 전차정거장 뭐 이런 것.

○ 000 주무관

중장기로 해서 5년 정도의 어젠다를 설정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000 팀장

예. 시급한 것은 내후년에, 그다음에 연도별로 나아가는 것.

○ 000 주무관

예를 들어 3·1운동 100주년처럼 역사적인 게 있다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하면 그 전년도에 검토를 하는 것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중장기계획을 TF에서도 마련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참 표석은 어렵기는 어려워요. 현대사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로 나가면 그쪽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 이쪽 현대사 분야에 관련된 표석들을 보면 대개 문인들이거든요. 문인, 예술인 이런 사람들 관련된 표석이 한두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인이 현대에 살던 그분들의 흔적도 의미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계의 인물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스포츠계, 학계도 있을 테고 여럿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기 나온 것처럼 박인환 집터니 은성주점이니 그 당시 암울했던 시대에 살았던 시인들이나 음악 하는 사람들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추억이라고 할까요? 머릿속에 그런 아련한 정서가 있는 것들에 대한 추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보면 전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현장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 지금 연예계가 강하게 부각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아마 흔적들을 추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해서 나온 테마처럼 5년 정도 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찾아 나아간다. 글썄요. 그것도 나름대로 표석이 앞서는 것 아니에요? 표석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앞선 것보다는 남은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지내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서 담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 000 팀장

네. 맞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니까 내년에는 1920년, 1921년, 1922년, 1923년 등등 또 그 해에 혹시 기념할 만한 혹은 100주년이 될 만한 의제를 올립니다.

○ 000 위원장

표석의 범주라고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각 분야의 성격대로 구분해서 나간다면 한도 끝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형평성 문제예요. 현대에 와서 민원 등이 들어와서 보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해당되는 것들을 민원으로 올리지만 그것과 똑같거나 비슷한 성격의 사건, 인물 이런 것들이 각 넓은 분야로 분포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4·19를 하다 보면 고려대학교만 4·19를 한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이 다 했는데 거기마다 다 표석을 세우는 것은 자기 자체 기관에서 의미 있는 장소에 표석 세우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서울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우다 보면 그 표석이 수십 개가 될 수가 있다고요. 서울시내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4·19, 저기도 4·19...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울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세종로는 지금 수백 개의 표석이 세워져야 할 거예요. 그런 성격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낙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너무 역사의 중심지로 위치했던 시간이 길고 넓고 많은 인구가 살았기 때문에 너무 시설이 많다 보니까 표석이 오히려 그 자체로 공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도 하죠. 또 각 사회단체끼리 자기들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 000 팀장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9/K11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25/35

Email : sokgisa88@daum.net



요즘에는 구청에서 잘 안 하죠. 예전에는 자치구에서 하다가 요즘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공문도 가고 정비도 하라고 하고 자꾸 나가니까 '표석 설치는 이쪽으로 해야 하나 보다.' 해서 구에서 설치는 안 하고 시로 신청합니다.

○ 000 위원

지난번 저희 최종보고회 때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표석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질을 스틸로 바꾼 게 표석이라고 하는 것과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표석은 돌이어야 하지 않냐?" 이런 입장을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 000 팀장

돌이 워낙 비싸고 자연훼손도 있어서요.

○ 000 위원

그다음에 사실 오석이라는 게 조선시대로 보자면 되게 귀한 재료였잖아요. 지금도 비싸지만 조선시대에도 왕실의 표석을 세울 때나 오석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하면 사진 찍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빛 반사가 심해요. 그리고 이게 오래 되면 새겨진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오석으로 계속 표석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다른 돌로 할까요?

○ 000 위원

다른 돌이나 진짜 이게 표석이라는 돌에 대한 강박관념을 없애면 다른 주물을 쓴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문제니까요.

○ 000 위원장

표괄적인 용어는 표석이 아니라 표지죠.

○ 000 위원



그렇죠. 돌로 하면 표지석, 표지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보기가 덜한데 바닥으로 들어가면 위에서 빛이 내려와서 반사되면 글씨를 잘 못 읽게 됩니다.

○ 000 위원

이것도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 000 팀장

무교 터는 야간에 취객들이 많은데 안 보이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안 보이는 것은 유리 패널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더 안 보이죠.

○ 000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빛 반사가 안 되는 재료로 표석을 세우는 게... 비각 같은 곳에 안으로 들어가면 안이 어두우면 오석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노천에 노출되는 표지석이다 보니까.

○ 000 팀장

예전의 개량 방식에 보면 벽돌바닥 형이라고 해서 주변에 벽돌을 설치하고 중간에 동판을 하나 얹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 000 위원장

값싸고 빛 반사 잘 안 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들로 하면 좋겠어요.

○ 000 주무관

16페이지에 보시는 표석이 서울시 표석의 역사인데, 1985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별로 중간에 동판도 했는데 사실 2013~2014년도에 디자인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디자인 안을 확정짓고 나서 더 이상 이전의 표석들은 설치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 000 팀장

벽돌바닥 형은 돈이 적게 들지 않을까요?

○ 000 주무관

예. 벽돌 형은 예산이 조금 적게 들것 같기는 한데, 이전을 하면 재활용을 할 수는 없고 완전히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 000 팀장

이게 인권표석하고도 비슷한 스타일 인 것 같아요. 인권표석은 모양을 다양하게 해서 발자국 모양도 하고 이렇습니다.

○ 000 위원

벽돌바닥 형은 훼손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벽돌 자체가. 그런데 지금 판석 형으로 되어 있는 이 첫 번째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지석의 형태인데 제가 서울은 디자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이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따라 해요. 여기에 와서 벤치마킹하고 지방에서 문화재 정비할 때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 000 팀장

심지어 판석 형은 문화재급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이설된 게 2~3기 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전시를 하자는 등, 잘 보관해야 한다는 등 그렇게 해서 자리를 옮겨서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 000 위원장

이게 아마 처음 표석 설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 형태를 따랐기 때문에 아마 제일 많고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변형된 모습들이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변형시키자고 해서 나온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 000 팀장

송파나루 터나 이런 것처럼 원석 쓰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 같은데요. 자연훼손 때문에 이렇게 원석을 쓰는 것은 이제는 힘들 것 같습니다.



○ 000 주무관

몇 가지 특히 동재기나루 터라든가 송파나루 터라든가 한강 주변에 있는 나루터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자연석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공원 쪽에 조형물처럼 설치되어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첫 번째 판석 형 194개가 가장 많은 형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판으로 부착을 하는 것은 가격이 많이 들까요?

○ 000 팀장

가격은 비슷할 것입니다.

○ 000 위원

다량으로 밑에 대석을 제작해놓으면 훨씬 싼 값에 가능할 텐데 날개로 제작을 하면 가격은 비싸지거든요.

○ 000 위원장

근래에 설치하면서 판석 형을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전부 다 벽돌 기둥 형, 벽돌 벽부 형, 신규 기본형 그 정도이죠.

○ 000 주무관

예. 맞습니다. 적어도 2014년 이후로는 전부 신규로 되어 있는 것들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표석의 형태가 계속 변화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 000 팀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신규 기본형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은 가급적이면 바닥 형으로 하려고 합니



다. 이제는 안내판하교의 경계가 점점 무너져서 가서 그렇습니다.

○ 000 주무관

저희가 엄선된 문구를 넣다 보니 더 많은 자료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000 팀장

예. 사진도 넣어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같이 옛날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런 모양이었구나.’ 하면서…

동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격차는 그렇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그런데 어쨌든 소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000 팀장

예. 거기서 형태보다는 향후 발굴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어딘가…

○ 000 위원

몇 분 정도로 예산을 하세요?

○ 000 주무관

사실은 선생님들이 다 매번 모여서 해 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세 분 이상은 참여를 해 주셨으면서 합니다.

○ 000 위원

꼭 우리 위원 중에 해야 할까요?

○ 000 팀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시고 외부에서 추천하실 만한 분이 있으시면…



○ 000 위원장

전에 이거 할 때 전문위원이라고 했나 그때 실무위원을 둔 적 있었잖아요. 거기 운영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000 주무관

사실 표석분과가 다른 분과와 되게 많이 다른 것 중 하나가 전문위원제도 운영인데요. 기존에 다른 분과는 전문위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하십니다. 위원회에도 직접 참여하시고 조사를 나갈 때도 참여하시는데 표석분과는 완전히 유리돼서 그분들은 문구가 나오면 감수하는 위원들만 선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올해부터 전문위원들 중에도 관련 전공자, 즉 독립운동 전공자 분들 또 국문학사 기타 등등 관련 전공자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초빙해서 안건이 나왔을 때 사전검토 의견을 받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 것도 추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표석분과가 다른 위원회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춰서 활발하게 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면도 있습니다.

○ 000 팀장

하나의 방법이 예를 들어 소위원회 때 어느 테마가 정해지면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그런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꼭 하나의 소위원회가 있을 게 아니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소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테마가 정해지면서 그 테마에 따라서 TF식으로 몇 개를 반드시 위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성사도 필요하다면 여성사 관련된 소위원회에서 여성사 관련된 분들만 해서 전문위원이 없으면 외부 위촉을 해도 되고요.

○ 000 팀장

예. 그래서 전문위원님들도 조사하고 위원님들도 조사해서 어느 정도 뭐가 나오면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 000 주무관

저희가 사실 표석의 사료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재 관련된 자료 관리와 함께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같이 보관이 돼서



계속 누적이 되어가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서울시문화재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 안에 표석도 집어넣어서 여기에 있던 자료들이 함께 문화재처럼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누적되고 어떤 건이, 사실 표석도 어떤 분이 반복적으로 설치를 계속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저희가 자료가 누적이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000 팀장

그럼 1차 소위원회는 먼저 의제를 정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자연스럽게 담당자한테 이런 테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소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런 위원님들 의견이 예를 들어서 여성사가 필요하다, 문학에 있어서의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테마를 정해 주시면 그 의제를 소위원회에 올려서 소위원회에서 이런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그 테마별로 해서 위원님 한 분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해서 조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올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 이런 기준에서 이것은 본 위원회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게 되면 그것은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위원장님하고 000 위원님, 000 위원님 등 활발하게 조사하시는 선생님들을 소위원회로 하고 거기에서 정해진 의제는 따로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조사하고 올라와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정해지면 이게 당장 시급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정해지는데 반기별로 하든 연말에 하든 한 번씩 본 위원회에 이리이러한 의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것이라고 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소위원회로 넘겨서 예를 들어 독립운동사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전체를 다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나오면 그렇게 조사하고 해서 나중에 연말에 이 위원회에 올린다는지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됐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운영하는 형태를 지금 우리 위원회를 할 때 다음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주제 같은 것들이 대두가 되어야 소위원회가 이루어지지 막연하게 주제도 없이 소위원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위원들 몇 분하고 관련된 연구자나 전문가



들을 몇 명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형태가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인원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여기서 소위원회를 하고 또 전체위원회를 하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제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실제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소위원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3·1운동 100주년 해서 전체를 한다고 해서 표석에서도 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형태가 돼서 그것도 별 효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 000 팀장

그런데 본 위원회가 3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중간 정도에 한 번 해서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 몇 분들 모여서 그 전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한테 혹시 필요한 의제가 뭐가 있을까 해서 받아서 그 일곱 분 위원님들의 제를 받고 먼저 순위를 정한다든가 어떻게 실행할지 그런 것을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각 테마별로 나가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테마가 있으면 그것을 몇 개씩 담당자에게 주시면 담당자가 정리해서 소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 000 위원

문학에서 나오는 의미 있는 정거장 그것부터 하면 어떻겠어요?

○ 000 팀장

옛날에 한강 개발 관련해서 했지만 요즘도 한강 관련된 것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담당정 하실 때처럼 지난번에 어떤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그러면 한강 관련된 것을 한 번 조사하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누락된 한강 관련된 것 중에서 더 추가해야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고 여성운동사 관련된 것도 혹시 논의가 된 바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장

네. 그런 계기가 되는 주제가 대두될 때 그것을 얘기하면서 전체 위원회 때 얘기를 꺼내고 거기에 준해서 위원회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할 때 여기에서 소위원회를 필요에 의해서 연락해서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고정적으



로 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 000 팀장

의제가 있을 때 하되, 일단 현재 말씀드린 세 가지 건은 논의를 일차적으로 해보고 저희가 담당자한테 주시는 의제를 보고 만약에 또 소위원회에 올려야 할 의제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어떤 위원님이 이런 의제를 하나 주셨다는 논의를 소위원회에서 해서 채택은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위원회 할 때 소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간단하게 보고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한마디 드리자면 사실 이 표석이 의제별로 내지는 그 당시 이슈별로 신청되는 것으로 하지만 표석도 범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분야, 지역, 인물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는데 이 범주보다 저는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이 추구하는 범주가 있어요. 각 분야별로 나누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가는 범주를 구성한 게 있는데 그 범주를 조금 참고하면 어떨까 싶어요. 거기에는 인물이나 이런 부분들로 나누고 그다음에 지역성도 반영하고 인물도 나누고 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편찬기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어떤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술이 되고 있어서 그 범주를 벤치마킹 하면 이 표석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000 팀장

지금 범주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세계문화유산이 생각이 나는데요. 세계문화유산에도 여러 가지 가치를 만들어 놓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면 의미를 두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범주를 여러 개 하되, 중복되는 범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 000 위원

그것은 어쨌든 한중연의 민백편찬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나눈 카테고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000 팀장

네. 그럼 기존의 320개도 카테고리로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부족한 카테고리
가 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 000 위원장

상당히 방대해진 분야가 되겠는데요.

○ 000 팀장

방대하게 하면 굉장히 산만해지는데 그것을 단순화 시키는 것은 소위원회
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럼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